

정보 정보화 사회 정보 혁명

고도 과학화·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제언

인류는 지금 커다란 변혁의 시기에 처해있다.

우리는 현대를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고 있다. 이제 정보혁명을 통해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고도 정보화 사회를 향해 내달고 있으며, 세계는 컴퓨터와 전기통신기술(Computer & Communication)의 발달로 10년, 아니 1년 단위로 급변하고 있다. 우리 사회 역시 이러한 역사적 변화 속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정보화 변화에 능동적으로 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만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과학기술과 미래사회

원래 과학기술은 선도 악도 아닌 인간의 창조적 산물로서 인간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이용될 때만이 그 가치의 여가 판정된다. 인간이 옳은 계 획과 방식으로 앞으로 발전을 계속한다면 과학기술에 의한 인간 행복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은 미래기술의 유체적 노동체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인간의 지적 사고활동의 일부, 또는 상당부분을 보완해 줄 것이다.

생명공학은 과학과 철학의 영역에만 속했던 생명의 미묘한 현상을 공학의 범주에 포함시켜 공해, 에너지, 식량, 의약품 등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구상에 다신 한변의 풍요를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의 신소재의 개발은 지금까지 인식되어 온 극한 상태의 개념을 확장하여 인간의 활동영역을 우주와 심해까지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생산분야에서도 자원과 에너지의 유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품의 경량화와 소량화를 추구하는 한편, 규격화된 상품중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경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변화의 플러스적 일면과 아울러 마이너스적인 면도 동시에 보아야 할 것이다.

물질적, 물량적 풍요의 반비례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공해, 환경파괴, 인구폭발, 식량부족, 정신공해, 정보공해 등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의 역리현상보다 더 무서운 위협은 사람과 과학기술과의 관계가 전도되어 마치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 현대인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능력조차 상실하고 있어서 부처불식간에 사고방식마저 기계화되어 가고 있는 측면을 지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자원의 소유 유무에 따라 빈부의 차이가 있었을 때, 미래는 정보의 소유에 따라 가진자와 갖지 못한 자가 결정되어지는 사회일 것이다.

오늘의 사회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를 주축으로 한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 이에 따른 컴퓨터와 통신의 상호 융합 그리고 사회 각 부문에 걸친 이들의 광

산성의 향상이 도모되며, 사무부문에 있어서도 OA의 획기적인 진전에 의해 사무작업의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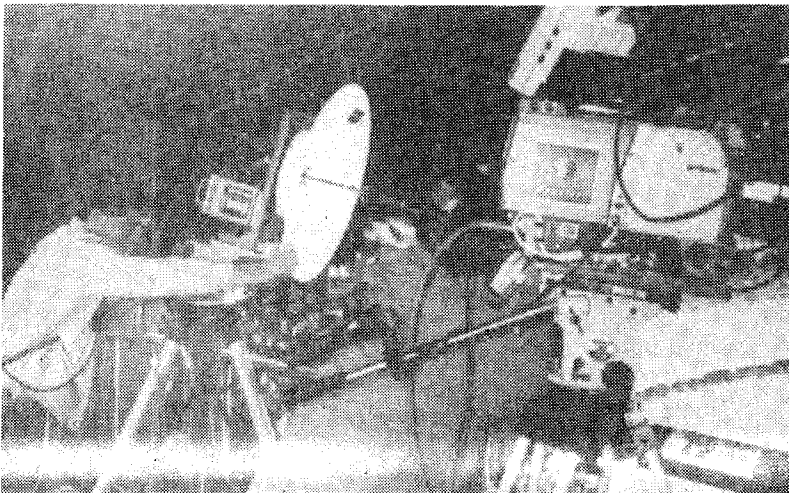
고도 정보화에 의한 혜택은 1차 산업분야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낙농경영 정보 시스템이나 어장 예측정보 시스템으로 인해 농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농수산

물의 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전자우편, 전자 신문, 자동 번역, 통역 시스템, 교통관제 시스템으로 하여 사회 공공분야에 있어서 여가의 증대나 가치관의 다양화라고 하는 욕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함으로써 편리성의 향상이 도모되어 질 것이다.

외국인과의 교류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으며, 자원, 에너지, 환경보전 등 국토개발의 면에서도 해외자원 탐사 체계 시스템, 지역집중 냉난방 시스템, 대기 오염감시 시스템, 지진 예측 시스템, 텔레포트의 건설 등 다양한 시스템이 실현되어 아직 이용되지 않은 자원의 효율적인 탐사, 개발, 에너지의 효율적인 개발이 용이 환경보전의 충실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국토 조성에 있어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정보화물결은 가정의 울타리 안으로 넘쳐 들어오고 있는 현실이다. 자동주행전공 청소기 등을 이용한 가사노동의 효율화와 홈 쇼핑(Home shopping), 홈 컴퍼니(Home company) 등에 의한 각종 정보의 입수나 각종 사무처리의 편리성 향상 및 홈오토메이션(Home Automation)이나



△막대한 장비와 기술력을 보유한 국제통신사는 전세계의 뉴스·정보를 독점 공급한다.

정보의 소유따라 빈부 가늠하는 미래사회 도래 복잡한 행정 절차·서류로 부터 공공업무 능률성 가져와 자본보다 편재 쉬워 독점 따른 악용 막을 대책 필요

면도 있다.

2. 고도 정보화 사회

정보화 사회, 이는 정보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사회

어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에 의해 다가오고 있는 사회이다.

이는 동시에 정보의 가치가 물질을 능가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사회로 인정되어질 사회

범위한 확산으로 세계는 정보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하나의 물결을 맞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발전이 상호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복지사회를 향한 새로운 기술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빠르게 정보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개인적 차원을 넘어 범국가적 정보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ISDN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체계가 그것인데, 이는 효율적인 정보전달과 균형적인 정보 분배라는 목표 아래 2년 내로 초고속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ISDN의 실현을 위한 5대 국가 기간 전산망의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한다.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교육망, 공안망, 국방망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를 실현 할 수 있으며, 일선 당사무소 단위까지 현실화됨으로써 복잡한 행정절차와 수많은 서류들로 부터 각종 행정관서가 해방이 될 날도 멀지 않다.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생산공정의 자동화에 의해 위험이나 단조로운 작업에서의 해방과 생

명에 유익한 것이 되도록 할려면 전국이 골고루 정보화되고, 모든 계층이 고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게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보는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속에 생활

하게 유익한 것이 되도록 할려면 전국이 골고루 정보화되고, 모든 계층이 고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게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보는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속에 생활

하게 유익한 것이 되도록 할려면 전국이 골고루 정보화되고, 모든 계층이 고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게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보는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속에 생활

주거 보안 시스템등을 이용한 방재, 방범, 주거환경의 보전등 쾌적한 생활의 유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은 우리가 지향하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발전적인 정보화 사회이다.

반면에 최근에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컴퓨터 범죄로 전산망 확대에 따라 발생되어질 소지량 안고 있는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가장 중요한 과제로 교육에 대해서도 발전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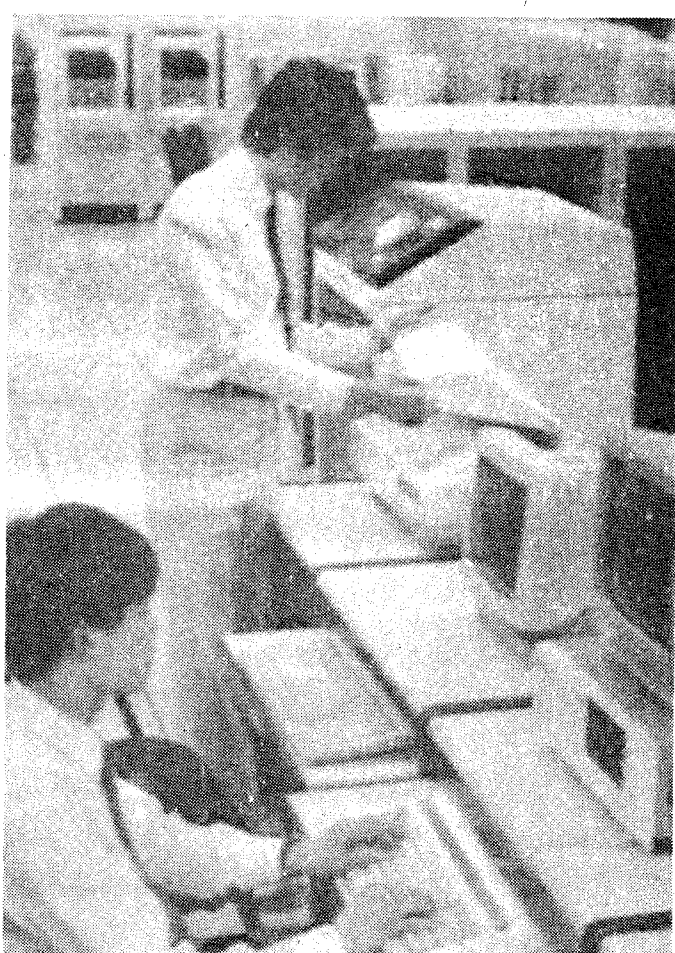
조지 오웰은 '1984'이라는 소설에서 정보화를 극단적으로 추진 했으나 자유는 하나도 없는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분야가 유기적으로 조직화한 현대사회에서 모든 조직은 일사불란의 과학적 조직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지고 제도화되며,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관행이나 조직원리에 따라 움직여지고, 사회조직의 능력화는 가장 큰 사회의 권력단위인 정부의 조직 강화를 필요케 하고, 이러한 정치조직의 힘이 극대화됨에 따라 근대적 매스컴의 힘으로 대중조직이 움직이게 된다.

이들 프롬(From)이 말하는 '복종적 함락' 대중의 매커니즘적 조작과 이를 악용하는 '지배적 함락' 세력집중 조작을 지닌 독재자의 출현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들은 조직의 권위나 카리스마적 지도자 앞에서는 무조건 복종하는 성향을 갖는 실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자기 상실의 조직인'이 될 수 도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개될 정보화 사회는 한국사회와 모든 국민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컴퓨터 시스템

고르게 분배되는 정보의 대중화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정보는 그 속성상 자원이거나 자본보다도 더 편재되기 쉽다.

학자나 관리, 실업가들만이 정보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의 주부들까지도 이용하게끔 되어야 진짜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다. 마치 오웰의 소설에서처럼 일부 관리들, 그것도 정보통신분야의 극소수 관리들만이 독점하는 사회가 된다면 이는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농어촌에까지 통신시설을 확충하고 전국에 걸친 단일요금제를 도입하여 국민 모두가 부담

권장되어지며 발전하여야 한다. 텔레텍스트와 케이블 TV의 결합으로 인해 방송과 전기통신의 융합도 적극 고려되어야 하겠다.

오직 정보화만이 10년후로 다가온 2000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우리민족이 나아갈 방향이며 살 길이다. 자원과 자본은 쓰면 쓸수록 줄어든다. 그러나 문화와 정보는 쓰면 쓸수록 늘어난다. 우리와 같이 자원이 빈약하고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정보화 시대의 커다란 운명의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공업화, 산업화를 위해서 무언하고 애를 썼다. 자원과 에너지가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거의 모든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오늘날의 경제를 이룩하였다. 산업화시대에는 우리는 다소 어려움이 많았으나 정보화시대에는 그렇지 않다. 자원이 없어도 정보만 있으면 된다. 정보는 1차적으로 우리의 머리에서 창출된다. 우리의 고학력수준은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20-30년 동안 정보화를 열심히 추진하여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나아가 국제 정세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21세기 태평양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변 강대국 사이에 위치할 우리의 입장에서 선제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정보화를 우리 사회의 각 부분 부분에 최대한 추진하고 활용하여야 하겠다. 나아가 우리의 숙원인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는 데도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임 해 경

(평화특대대학원·석사37)

학술정보

‘농업 해체 위기’ 심포지엄

‘농업해체 위기’와 한국 농업의 재편 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이 11월 2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주최로 연세대 장기원 기념관에서 열린다.

동물자원 국제 심포지엄 '21세기를 향한 동물자원의 연구 전망'을 주제로 건국대 동물자원연구소 주최 제1회 국제심포지엄이 11월 2일과 3일에 걸쳐 건국대 상허기념도서관에서 열린다.

인문 사회과학부

국내외 자료 목록

인문 사회과학의 각분야에서

의 진보적 학술운동과 연구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넓은 시야에서 전개하기 위한 인문 사회과학의 각종 정보들을 편집, 기획한 자료집이 발행되었다. 도서출판 한울에서 나온 이 목록은 이리황토서점 자료 기획실에서 엮었으며 174면 가격은 3천원이다.

매주 수·목 특강실시

총학생회 교과과정 심의 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매주 수·목 양일간 중앙도서관 시청각 교육실에서 2시부터 특강을 진행한다. 수요일 진행되는 특강은 도진순(한양대)강사에 의한 '문단과 통일'의 한국현대사'이며 목요일 특강은 '현대철학의 근본문제'에 관하여 김창호(한신대) 강사가

진행한다. 각일정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수요일 특강 문단과 통일의 한국 현대사
10월 31일 문단과 통일의 한국 현대사
11월 7일 한국전쟁
11월 14일 60~70년대 민족운동과 남북관계
11월 21일 80년대 남북관계와 통일운동의 진전

●목요일 특강 현대철학의 근본문제

- 11월 1일 철학의 근본문제의 사회 및 역사적 적용
11월 8일 사적유물론 논쟁
11월 15일 페레스트로이카와 철학논쟁-모순론
11월 22일 페레스트로이카와 철학논쟁-방법론 문제

우리의 문화, 우리의 금지 ③ 거북놀이
경기도 이천, 충북 음성 등 경기, 충청지방에서 한가위날 청년들이 펼치는 민속놀이. 수숫대로 거북모양을 만들어 사람들이 걸어서 농악에 맞춰 마을의 집을 돌면서 집집마다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동네의 잡귀잡신을 쫓는 의미가 있다.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萬石거북아 놀아라!

한가위 보름달이 휘영청 밝아오면 거북을 앞세우고 풍물을 울려라. 흥겨운 농악가락을 높이 울려라니 팽과리 세 번 치고 삼고, 북, 징, 소고도 세 번 쳐서 집집마다 불타고 무병장수 기원하네.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만석 거북아 놀아라 천석 거북아 놀아라 이 집에 사는 사람 무병장수 하사이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 무병장수 하사이다.'

우리의 민속놀이는 민중공동체의식의 소산이었습니다. 민중사를 일으킨 대다수 민중의 뜻과 뜻을 결집하여 풍년을 기원하고 대동단결을 염원하는 놀이의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만의 독창적인 놀이문화를 전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승이란 단순한 여백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재현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의기발전을 토대로 새로운 역사발전의 화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놀이문화는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우리의 놀이문화를 전승해야 할 때 우리의 고유문화가 더욱 화려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의 놀이문화는 우리 고유의 문화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